



# WORLD NEWS

## 해 외 동 향

### 대형화면으로의 전환

앤드류 힐과 앤드류 아도니스는 차세대 텔레비전 하드웨어의 동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21세기에는 어떠한 종류의 TV가 전세계적으로 시청될 것인가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토의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과거로 돌아감을 알 수 있다.

유럽 공동체 각료들은 유럽에서의 대형화면 TV 서비스 장려를 위해 "활동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1992년 4월 위원회가 이 안을 제안한 이래 각료들이 이러한 계획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여섯번째이다.

차세대 텔레비전 하드웨어를 장려하기 위해 EC가 취해야 할 조치 및 유럽용 고급 텔레비전 장려에 투자되어야 할 액수 등 토의의 핵심 논제 또한 변함이 없다.

현재, 국제 텔레비전 산업은 대형화면 텔레비전, 디지털 전송기술 및 고선명 시네마급 화면등을 포함하는 여러 옵션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이 옵션들이 상호 배타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택은 복합적이다.

유럽에 있어서 활동계획중 우선과제는 보다 큰 화면을 통한 표준 선명도 TV 방송으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것이다. 제안되고 있는 EC 계획은 이 산업을 어떤 특정 응용 과학으로만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다. 영국은 제안된 자금 제공(초기 Ecu 850m에서 Ecu 228m로 저하됨)이 여전히 낭비라는 생각으로 이 안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기존의 아날로그 기술을 이용한 HDTV가 수용되었으나 HDTV 수신기 세트의 가격이 상징적인 Y1m(6,250)마르크로 겨우 하락되었으며 프로그래밍 역시 부족하고 미약한 상태이다.

보다 큰 진전은 미국에서 이루어져 왔으니, 여기에서는 얼마전 세계의 경쟁조합들이 서로 협력하여 디지털 HDTV에 관한 단일 기술 표준을 연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운용시스템이 수행되기 전에 극복해야 할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하며 미국 텔레비전 방송국은 고품질 시스템에 대한 제작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장비를 감당할 수 없으리라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

대규모 시장, 시네마급 텔레비전이 아직은 요원해 보이거나 제작자, 방송국 및 정부는 지난 10년간

의 과오와 비약적인 발전 모두에서 많은 것들을 터득하였을 것이며 현재에는 표면적인 동요에서 제기되는 것 이상으로 화합하여 연구에 임하고 있다. 또한 지난 6년간 고선명 응용과학의 가능성에 초점을 둔 이후 이들은 텔레비전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 - 보다 나은 품질, 보다 폭넓은 선택, 또는 이들의 조합 - 과 이에 지불되어야 할 추가액 등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논의의 방향쇠는 디지털 응용과학에의 도달과 이를 텔레비전 전송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디지털 압축 기술은 품질을 향상시키며 동일 채널을 통한 훨씬 더 많은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케 한다. 예를 들어 방송국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하나의 영화 채널을 통해 동일한 영화의 시작시간에 시간차를 두어 배열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시청시작시간을 선택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HDTV의 보다 큰 장점은 기존 TV와 마찬가지로 케이블 및 위성으로뿐 아니라 지상으로도 방송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디지털 기술 덕분에 오랜 경쟁사들을 결합시킴으로써 배타적인 HDTV 표준을 설정하여 경쟁적 이득을 얻고자 했던 유럽의 수고를 종결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성과로서 현재 유럽위원회가 승인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HDTV 표준을 승인해야 할 미연방 통신위원회(FCC)가 처음부터 미국, 유럽 및 일본 회사들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일본의 아날로그 제안은 FCC가 디지털 표준을 필요로 함이 명백해 짐에 따라 결국 제외되었다. 5월에 구성된 "대동맹"에는 EC의 초기 HDTV 전략의 주요 수익자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던 Phillips와 Thomson Consumer Electronics, 네덜란드 및 프랑스 전자공학 그룹들이 포함되고 있다.

반면, 유럽위원회, EC정부들 및 기업은 디지털 연

구 및 표준화의 조정에 새로운 자극을 가해왔다. 독일의 우편 통신성이 세운 한 그룹은 일반, 비HDTV 방송국에 대해서는 1993년 말까지, 유럽의 디지털 위성 및 케이블 전송에 대해서는 1995년초까지 디지털 표준안을 채용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1980년대 EC의 HDTV법규중 상당한 해를 끼쳤던 몇몇 실패는 독일 조직자들의 가슴에 아직도 생생하다. 아날로그 HDTV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EC의 최초의 노력은 상업 방송가들과 위성 운용가들이. EC 법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위성으로부터 전송하는 방법으로 EC의 강제적인 전송 표준을 피함으로써 와해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EC가 후원하는 응용과학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던 제조업자들은 그들이 개발한 수신기들에 대한 서비스의 부재를 깨닫게 되었다.

이번에, 디지털 그룹은 처음부터 위성운용가, 상업방송가 및 공공방송가, 제조업자 및 국내 주관청간의 협력을 고무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최근 신문 발표에서 이 그룹은 유럽 시청자들의 요구를 건의하고 전적인 시장주도 방식을 계속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우리는 사용자의 요구사항들을 조사하고 Mac(초기의 EC HDTV 표준)의 경험으로부터 여러가지를 배워야 합니다."라고 독일 통신성의 Wolfgang Becker씨는 말한다. "사용자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방송가와 기업은 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EC회사들 사이에는 디지털 그룹의 작업에 관해 조심스러운 낙관이 존재한다. 표준-품질위성 방송의 선구자중 하나인 Societe European des Satellites (SES)의 Yves Filtes씨는 조정된 접근방식이 효과를 발휘할지의 여부를 논하는 것이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SES는 디지털 전송의 선구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최소한 이번에는 주요 관계자들이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지적한다.

**해 외 동 향**  
대형화면으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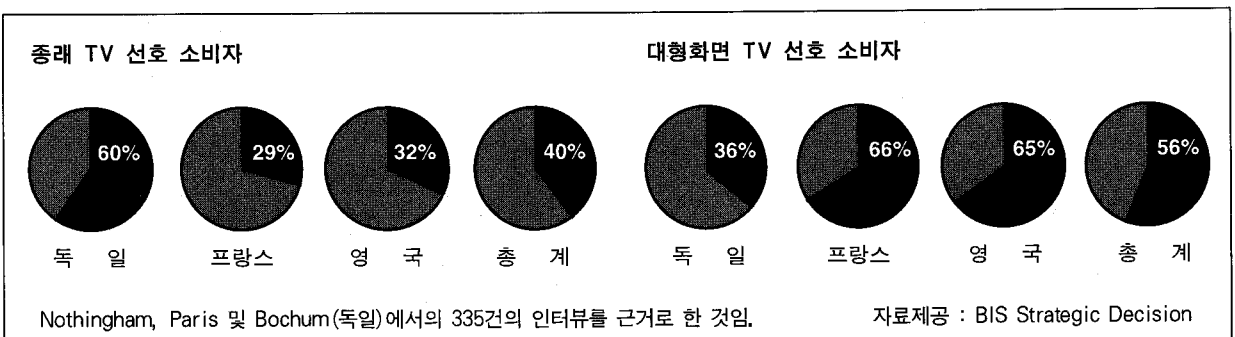
따라서 디지털 응용과학에 대한 연구는 EC의 활동계획-언젠가 그것이 채택된다면- 긴밀히 연결되어야만 한다. 유럽 위원회가 가을에 공식 디지털 텔레비전 전략을 제안하게 되면, 이 위원회는 이 두 요소를 융합시킬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EC 자금 제공의 목적은 새로운 대형 화면 서비스를 자극하여 이로써, 디지털 HDTV가 제공해야 할 모든 것에 궁극적으로 관련되리라고 위원회가 믿고 있는 소비 전자공학 시장을 후원하는 것이다.

미국의 도전에 관한, Philips와 Thomson의 대동맹에의 가입, 유럽 디지털 실무위원회의 노력 및 EC에서의 대형 화면 텔레비전 세트의 개발등은 대서양 양측에 대한 노력이 상호 대립되기 보다는 오히려 상호 보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서 Philips는 미국 대동맹과의 경험이 실무위원회를 통한 유럽 디지털 전략의 개발에 유용하리라고 이야기 한다.

미국 대동맹이 개발한 디지털 HDTV 표준은,

	독 일	프랑스	영 국	총 계
<b>대형화면 선호 소비자 / 지불예상 추가금</b>				
종래 TV와 동일 또는 그 미만	13%	23%	24%	20%
+12% 추가	7%	16%	3%	9%
+13 ~ +30% 추가	25%	34%	46%	35%
+31% ~ +50% 추가	25%	6%	21%	22%
+51% 추가	18%	12%	7%	12%
<b>대형화면 선호의 주요 이유</b>				
감상에 더 좋다(영화감상에 좋다)	67%	43%	56%	55%
화면이 좋다(품질 및 크기)	42%	66%	53%	54%
보다 매력적인 TV	33%	12%	4%	16%
<b>대형화면의 잠재적 장애요인</b>				
거실이 너무 작다	51%	46%	17%	38%
TV수상기가 너무 작다	14%	29%	49%	30%
화면의 일그러짐	16%	17%	5%	13%
화질 불량	19%	3%	5%	9%
가격	8%	3%	5%	5%



유럽, 미국 및 일본의 방송 하부구조간의 기술적 차이로 인해 전세계적 표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 위원회와 미국의 노력에 관련된 EC회사들에 의하면 양자에 중요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문제는 미국, 유럽 및 일본의 소비자들이 - 보다 폭넓은 선택폭과 "대화식" 비디오와 같은 혁신에 대한 그의 약속과 함께 대형 화면 및 디지털 방송에 투자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들이 새로운 채널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디코더를 구입하더라도 유럽위원회가 믿는 바와 같이 다음 세기 언제에 고선명도, 시네마급 화면으로의 갱신에 관심을 가지겠는가?

정보과학 자문기관인 BIS Strategic Decisions가 영국, 프랑스 및 독일에서 조사한 최근의 소비자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형 화면 TV가 종래의 TV보다 56%~40%정도 선호되었고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약 2/3가 대형 화면 TV를 지지하였으며 독일에서는 60:36의 반대비율로 지지하였다.

대형 화면을 선호하는 이들은 그 주요 이유로서 영화 감상에 더 좋다고 응답하였다. 수상기의 크기와 화질은 그 반대의 주요 이유였다.

가격면에서는 대형 화면 포맷을 선호하는 고객의 3/4이 종래 수상기보다 새로운 수상기에 기꺼이 더 지불하겠다고 했으나 3명중 1명만이 (이는 전체 소비자의 1/5에 해당함) 1/3이상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BIS의 한 분석가인 David Mercer씨는 "이는 유럽을 가로질러 수백만의 사람들이 고급 테크놀로지 이전이라도 대형 화면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뜻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일단 대형화면이 "가정용 시네마"로서 시장에서 거래되면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의 구입을 희망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소매업자들도 마찬가지로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 소매업체인 Dixons는 EC의 상품이 통과되면 1994년 가을까지 그의 상점에 "충분한" 대형화면세트를 들여놓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영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21인치 종래 화면의 대용으로 25인치 대형화면이 약 1,000으로 판매될 것이며 이 가격은 2,3년내에 오늘날의 650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TV 시장은 충분히 발달한 상태이며 신상품을 요구하고 있다"고 Dixons 그룹의 기획 책임자인 Roger Salmon씨는 말한다.

"대형 화면은 떠오르고 있는 차기의 주요 상품입니다. 소비자들이 한 단계 올라서고 제조업자들이 대형화면의 가격을 낮추어서 유용하게 되면 HDTV의 도입은 상업적으로 실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자들은 한결같이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1세대에 있어서 가격은 대단히 비쌀 것이나 (대형 화면에 대한) 합의된 표준이 마련되고 생산량이 증가하면, 현 테크놀로지 이상의 최대 비용은 보다 큰 스크린 정도일 것입니다."라고 Philips의 방송매체 부문의 매니저인 Robert van Costenbrugge씨는 말한다.

이는 방송가들에게 달려있다. 기업 또는 국가의 정부들이 어떤 최종 합의하에 제공해야 할 추가액을 포함하여 EC의 Ecu 228m의 대부분은 이들이 대형 화면과 호환 가능한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생산하도록 격려하는 일종의 감미료이다.

공식성명 없이는 방송가들이 대형화면으로 영화를 상영하거나 방송하지 않으리라는 가정이 논의될 수 있다.

영국의 독립 방송국인 채널 4의 수석 매니저인 Chris Daubney씨는 "대형 화면을 추진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은 분명치 않으나 우리가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상당한 자본금-스튜디오 장비 등-이 소요됩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London Weekend Television의 법인 업무 담당자인 Barry Cox씨는 다음과 같은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시장체제가 대형 화면을 추진한다면 어쨌든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위원회가 투자한다면 우리도 물론 이에 따를 것입니다.”

사실상 관련 비용은 그다지 대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옹저버들은 영국 방송 산업에 부과되는 총 금액을 100m 미만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방송국들이 한번에 그들이 상품 모두를 대형 화면으로 전환할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대형 화면등으로 발사되는 프로그램들에 별 매력 없는 우편함 수신을 임기응변책으로 써야 할 것이 확실한 기존의 소형 화면 사용자들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이 전환은 아마도 영화, 스포츠, 드라마에 국한될 것이다.

진도는 아직 밝지 못하다. 자금 제공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표준” 선명도에서 대형 화면으로의 진행에 대한 두가지 대안적 수단에 대해 제안자들간의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일부 관련자들은 대형 화면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신호를 강화하는 소위 “PAL-plus” 시스템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기를 바란다: 다른 관계자들은 디지털이 유용해 질 때까지 기다릴 것을 바라고 있다. 기업이 한 편에서 나머지 한편으로의 전환을 종결지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일부의 문화적 차이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이 새로운 세트를 구입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BIS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대형 화면에 대한 가장 많은 반대 의견은 화면이 너무 큰 것을 우려하는 응답자들로부터 비롯된다 : 이와 비교해 볼때 같은 의견을 제시한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주로 그들의 거실이 너무 작음을 우려했다.

이는 아마도 다큐멘터리에 알맞는 주제일 것이다.

## 전기통신 행정의 동향

### 1993년 통신에 관한 현황 보고 (통신백서)에 대하여

일본 우정성은 1993년 통신백서를 작성하고 6월 1일 내각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이를 6월 30일부로 출판하였다.

이번 백서에서는 1992년의 정보통신 현황 및 정보통신 정책의 동향 외에 테마로서 「신영상 시대를 맞이하는 정보통신」을 다루고 있다.

이 백서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